

<2014년 12월 3일 수요일>

자기 육의 행위로 천국에 자기 집이 만들어지고 천국에 자기 소유의 땅을 넓혀 간다

본 문 마태복음 16장 27절
 고린도전서 15장 19절

* 초록색 글씨는 ‘문장’을 강조하고, 파란색 글씨는 ‘단어’를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.
밑줄 친 부분은 힘 있게 전해야 될 부분이다.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오늘은 <천국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그동안 <천국>에 대해서는 자세히 여러 번 말씀해 주었습니다.

오늘은 특히 <천국의 자기 집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설교자들도 잘 전하고,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듣기 바랍니다.

말씀을 들을 때

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* <성자가 주신 잠언>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‘잠언 네 편’을 먼저 전해 주겠습니다.

- ◆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전디고 이겨라.
- ◆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것이 <신앙>이다.
- ◆ 성자가 이끄시는 주관권에서 같이 살아도
‘근본’ 을 모르면 휴거되지 못한다.
- ◆ 누구든지 <물>을 따라 내려가면 ‘바다’ 로 가게 되고,
<물>을 따라 올라가면 ‘산’ 으로 가게 된다. 이것은 순리다.

<잠시 쉬었다가> 처음부터 잘 전해야 된다.

* 이어서 <천국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‘핵심’ 을 말씀하니,
처음부터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인간이 <같은 지구>에서 살아도
각 나라별로, 각 가정별로, 각 개인별로 따로 살듯이,
<신앙의 세계>에서도 그러합니다.
-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믿고 같은 주관권에서 살다가
<같은 천국>에 가서 <같은 지역>에서 살아도
‘각자의 개성과 재능과 공력’ 대로 나뉘어져서 살게 됩니다.
- ◆ <천국>에 가도 ‘한 방’ 에서 살지 않고,
‘각자의 집’ 에서 살게 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◆ 같은 천국이라도

낙원 천국, 천상 천국,

황금성 천국, 신부 천국, 대 천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
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 때 어느 시대를 맞고 살았느냐,

누구를 따라서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,

어떤 차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

‘영이 거하는 곳’ 이 결정됩니다. <끝>

◆ <이 세상>에서 차원으로 쪼개져서 살듯이 <천국>에서도 그러합니다.

보낸 자를 어떻게 따랐느냐, 얼마나 행했느냐,

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쪼개져서

‘영의 세계’ 를 이루고 살아갑니다.

◆ 부부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를 이루면서 살기도 하는데,

그곳이 천국의 가장 최고 위치이며 신부 주관권 천국인

<황금성 천국>입니다.

이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.

이 세상에서 <성약 신부 역사>로 와서 <구원자>를 맞고

그를 통해 <신부의 말씀>을 듣고,

<신부의 완전한 행위>를 하여 휴거된 영들만 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* 이어서 <천국의 자기 집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★ <이 세상>에서도 ‘자기 것, 자기 집’ 이 있어야
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.

<천국>에서도 ‘자기 것, 자기 집’ 이 있어야
자기만 마음대로 쓰면서 살 수 있습니다.

고로 천국에는 ‘개인의 집’ 이 있습니다.

그러나 이 집은 그냥은 못 만듭니다.

마치 자기가 ‘돈’ 을 벌어서 <건물>을 건축하듯이,
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‘자기 행위와 자기 공력’ 으로
<천국에 자기 개인의 집>을 만듭니다. <끝>

- ◆ ‘자기 집’ 이 따로 있고,
‘그 주관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
길과 공원과 환경’ 이 따로 있습니다.

이곳은 ‘같은 급의 차원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곳’ 으로서
그곳은 차원이 낮은 주관권에 속한 사람들은 못 다닙니다.

- ◆ 차원대로 ‘질서의 세계’ 가 정해집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성자를 가운데 놓고
‘성자 뒤쪽’ 에 사는 자가 있고,

‘성자 앞쪽’에 사는 자가 있고,
‘성자 오른쪽’에 사는 자가 있고,
‘성자 왼쪽’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. <끝>

- ◆ ‘작은 공적을 세운 자’가
〈큰 공적을 세운 자가 있는 주관권〉에 갈 수가 없습니다.

그러나 성자와 주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조건을 세워 주면,
그 공적으로 인해 ‘작은 공적을 세운 자’라도
〈큰 공적을 세운 자가 있는 주관권〉에 가기도 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- ★ 지금은 〈성약 신부시대〉입니다.

고로 성약역사에 와서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고 따르며
성약말씀을 듣고 행하여 구원받으면 <신부 주관권 천국>에 갑니다.

- ★ 그러나 ‘구원’과 ‘휴거’는 다릅니다.

구원받은 자들 중에서
자기 영을 완전히 만들어 ‘신의 형체로 변화된 영들’은
<휴거의 황금성>으로 갑니다.

- ★ 휴거되어 〈같은 황금성〉에 간 영들이라도
‘땅에서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성자를 사랑하며 산 자들의 영들’은
〈다른 주관권〉에 가서 따로 살고,
‘땅에서 결혼하고 성자를 사랑하며 산 자들의 영들’은
〈그에 해당되는 주관권〉에 가서 삽니다.

<같은 신부성>이라도 쪼개져 있습니다. <끝>

- ◆ 천국에서는 ‘세상에서 육의 행위’ 대로 그 영들을 대하기 때문에
<같은 천국>이라도 차원대로 쪼개져서 존재합니다.

하루만 봐도 그러합니다.

‘그 날 자기 생각과 행위의 차원’ 에 따라서

‘자기 혼’ 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.

자기 생각과 행위의 차원이 높으면

‘자기 혼’ 도 <차원 높은 곳>에 가고,

차원이 낮으면 ‘자기 혼’ 도 <차원 낮은 곳>에 갑니다.

- ◆ <육계>에서 ‘육신의 삶, 육신의 행위의 급수’ 에 따라서
<영계>에서 ‘영’ 이 그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

- * 계속해서 <천국의 자기 집>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중요한 핵심 말씀이 나가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5>

- ★ <땅>에서도 ‘자기 집’ 이 귀하고 중하듯이,
<천국>에서도 ‘자기 집’ 이 그리도 귀하고 중합니다.

<천국의 자기 집>은 자기 소유이니,

자기 마음대로 쓰는 ‘축소판 천국’ 입니다.

- ◆ <천국의 자기 집>에는 ‘정원’도 있습니다.

<정원 안>에 궁궐, 산, 나무, 바다, 강, 시냇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.

- ★ 그러나 그냥은 <천국의 집>도 <정원>도 안 만들어집니다.

세상에서 자기 육이 세운 공적대로, 자기 육이 행한 대로

<천국의 집과 정원>이 만들어지고

<집과 정원 안의 모습>이 갖가지로 갖추어집니다.

- ◆ 섭리사에서 선생의 몸이 되어 성령 사역을 하는 자의
<천국 집과 정원>을 보니,
‘집과 정원 안에 한 세상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. <끝>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6>

- ◆ <이 세상>에서도 ‘자기 소유의 바다’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,
자기 집 정원 뒤에 산이 둘러져 있고,
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자기 정원을 거쳐 가기도 합니다.

이렇게 자연과 맞닿아 있으면,
그 자연을 ‘자기 것’처럼 쓰게 됩니다.

- ◆ 섭리인 모두도 ‘자기 것’을 가지고 있습니다.
<월명동>이 다 ‘자기 것’입니다.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셨습니다.

결혼하면 ‘신랑의 것’이 ‘신부의 것’이 되듯이,

<성약 신부역사>에 와서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게 되니,

‘삼위의 것’ 이 ‘우리의 것’ 이 되었습니다.

- ◆ <월명동>에는 산도 있고, 호수도 있고, 정원도 있고,
산책로도 있고, 등산로도 있고, 골짜기의 계곡 물도 있고,
돌 조경도 있고, 기암절벽 대둔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

- ◆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도 있습니다.

그런데 땅의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, 하늘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

땅에 있는 것을 하늘나라에도 ‘기념’ 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 <끝>

- ◆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<영계>를 모르고 살면 인생 헛사는 것이다. 육의 삶에서 끝난다.

땅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라도 천국에 못 가지고 간다.

땅의 것은 콩 한쪽도 못 가지고 간다.

절대 <땅>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,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,

시대 성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.

그러면 ‘세상에 있는 자기 것’ 을 100% 다 가지고 갈 수 있다.

‘육’ 으로는 못 가지고 가지만 ‘영’ 으로는 가지고 간다.

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되,

천국 식으로 100배는 더 좋게 만들어서

‘기념’ 으로 두게 하신다.” (하셨습니다.)

- ◆ 천국에 <자기 집>을 만들 때,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
‘그 사람이 좋아하는 환경’ 을 만들어 주십니다.

산을 좋아하면 ‘산’ 을 환경으로 주시고,
바다를 좋아하면 ‘바다’ 를 환경으로 주십니다.

그러나 ‘자기 육의 공적’ 이 있어야
자기가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- ◆ 특히 <천국>에 ‘자기가 원하는 환경’ 을 가지고 살고 싶은 자는
절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,
땅에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고,
시대 말씀을 행하며 구원받고 휴거돼야 합니다.
- ◆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, 공적대로
‘환경’ 을 만들어 주시는데, 천국 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.

<전환> 중요 부분

*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주면서
<천국의 자기 집>에 대해서 더 말씀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,
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‘자기 몸’ 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니 자유롭습니다.

이와 같이 <땅>에서도 ‘자기 집, 자기 것’ 이 있어야
자기 마음대로 편히 씁니다.

<천국>에서도 ‘자기 집, 자기 정원’ 이 있어
자기 마음대로 쓰게 해 놓았습니다.

그러나 그냥은 못 만들고,

‘세상에서 자기 육의 의의 공력’ 대로 만들게 됩니다.

★ <의>는 ‘돈’ 과 같습니다.

<이 세상>에서도 자기가 돈이 많으면,

‘땅’ 도 많이 사고 ‘집’ 도 크게 지어 자유롭게 삽니다.

<천국>도 그러합니다.

자기 육신이 땅에서 살 때 주와 일체 되어 행하고,

사랑의 행실을 하고, 공력을 많이 쌓으면,

‘돈’ 을 많이 모은 자와 같아서

<천국>에 ‘자기 집과 정원’ 을 크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.

★ 세상에서도 땅을 개발하면 넓게 쓰게 됩니다.

이와 같이 ‘자기 의로운 행실, 신부의 행실’ 로 천국을 침노하여

<천국의 자기 집>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.

<천국의 땅>은 한 번 차지하면,

영~원히 ‘자기 땅, 자기 집, 자기 정원’ 이 됩니다.

◆ ‘영계의 자기 집, 자기 환경’ 이 시원찮은 자는

그 육이 그런 정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.

고로 그때마다 깨달으라고 보여 줍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- ◆ 천국에 가 보면, 자기 육이 얼마나 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자기 육이 행한 대로

천국에 ‘자기 집, 자기 정원’ 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.

- ◆ 어떤 자는 ‘일반 집과 일반 정원’ 을 가지고 있고,
어떤 자는 ‘금, 백금, 다이아몬드로 된 집과
황금으로 된 정원’ 을 가지고 있습니다.

그 차원이 상 - 중 - 하로 나뉘어져 있어 격차가 심합니다. <끝>

- ◆ 천국에 가 보면,
이 세상에서 육신이 감사생활을 했느냐, 안 했느냐에 따라서
<천국의 집>이 표가 나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.

감사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
<땅>에서도 <천국>에서도

그 사람이 행한 대로 표가 나게 해 주십니다.

<말씀 마무리> 중요 부분

*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천국>에 가 보면 어떤 자는 ‘집’ 만 가지고 있고,
땅이 없어서 ‘정원’ 이 없습니다.

‘아파트 식 집’ 입니다.

그 넓고 좋은 천국에서도

‘정원’ 없이 ‘아파트 생활’ 을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.

모두 자기 육이 세상에서 행한 공적대로

천국에 집이 지어지고, 땅이 넓어지고, 정원이 갖춰지니,

공적이 적으면 많이 못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.

- ★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사람의 체질대로, 소원대로 해 주시는데 원하는 것이 있어도 ‘공적’ 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해 주십니다.

고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

성자와 주와 마음 일체, 생각 일체, 심정 일체,

행실 일체, 사랑 일체 되어서

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크게 하고,

<성자의 핵심 주관권>에서 성자와 딱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.

- ◆ <영계>에서도 ‘집’ 이 없고 ‘거처’ 가 없는 영들은 나그네같이 떠돌며 희망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
- ◆ 지옥이나 흑암으로 간 영들에게는 ‘자기 땅’ 이나 ‘자기 거처’ 가 단 한 평도 없습니다.
‘자기 것’ 이 없으니, 영원히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.

- ◆ <천국 법>에 따라서 땅에서 육이 행하는 대로
성자가 구상대로 천국에 ‘집’ 을 만들어 주십니다.
인간이 행하면, 그 의로 성자가 구상대로 만들어 주십니다.

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비합니다!

* 문제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.

◆ 선생이 조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.

“너의 천국 정원에는 내가 안 갈 것이다.

너의 천국 집에는 내가 안 갈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왜 그런지 맞춰 보세요!

그리고 답은 다음에 조은 목사에게 들으세요.^^

◆ 모두 <천국의 자기 정원>이 너무 넓어서
걸어 다니기 다리가 아프도록,

<천국의 자기 집>이 너무 넓어서
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오도록

지금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행하고,
성자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기 바랍니다!

◆ ‘영적인 자’가 한 번 넘어져 <육적>으로 빠지게 되면,
다시 <영적>으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.

잘하다가도 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실수하니,
긴장을 늦추지 말고
성자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
더욱 더 근본을 깨닫고 자기 할 일을 행하여 휴거되기를 축원합니다.

* 말씀 마쳤습니다.